

간호사의 전문권력

池 聖 愛

(중앙의대 간호학과 교수)

1. 문제의 제기

오늘날 간호사들은 스스로 전문적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그에 합당한 기대와 보상, 이를테면 높은 보수와 사회적 지위 등을 소망하며 일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간호사들은 이러한 자신들의 소망을 어느 정도 충족시키며 일하고 있는가? 직업에 대해 연구하는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전문직은 고도의 기술과 사회적 가치, 그리고 장기간의 교육과 훈련, 이타적인 동기, 자율성 등의 특성을 갖는다고 한다. 이러한 전문직업의 특성을 현재 간호사들에게 적용해 보았을 때 과연 간호사들이 전문직업인이라고 말하기엔 아직 요원하다고 본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매해 배출되는 간호사수는 약 6000명인데 그중 4년제 대학의 학사출신 간호사들은 13.5%인 852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85%가 3년제 전문대학 출신이라는 점(이광자 외, 1991) 한가지만 보아도 알 수 있다. 더우기 간호사들이 가장 많이 취업하고 있는 병원상황은 어떤가? 전국민의 의료보험이 시작된후 보험수가에 대한 정부의 통제에 의해 병원 경영이 매우 어려워졌고 간호서비스에 대한 급여가 합당하게 책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간호인력은 업무증가에 따라 적정수준으로 배치되지 않아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간호사의 사직율은 병원마다 차이가 있으나 대략 15~20% 정도로 아직도 높은 편이며 근무 경력은 1년미만이 약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과거와 달라진 것이 없다. 이러한 실정에서 간호의

능숙성과 전문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더우기 부족한 간호인력과 한국적 문화배경에 의해 환자마다 보호자나 간병인이 상주하며 필요한 간호를 위임받아 행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간호사를 평가하는 사회대중의 시각은 매우 부정적이다.

입원비외에 환자들이 간병인들에게 지불하는 엄청난 간병료를 우리는 그대로 보아 넘겨서는 안된다. 간병인들이 받는 보수와 간호사들이 받는 보수를 금전적인 측면에서만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하면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금전적 보수와 사회적 위치는 비례하며 그 직업의 전문성과도 관련이 있다. 이렇게 가다가는 간호사들 스스로 간호사의 역할을 버리게 될지 모르며 간호사를 대치하는 새로운 제도가 대두될지도 모른다. 우리 스스로 이러한 비판을 한다는 것은 뼈아픈 일이지만 앞으로 우리가 어떤 노력을 어느 정도 해야 하는가를 생각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고도로 직업이 전문화되어가는 시대에 간호사라는 직업이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의 현재 상황과 간호의 대상으로서 개인과 사회를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들 자신의 문제를 파악하고 간호를 통해 건강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 우리가 세워야 하는 직업적 목표를 성취하고 보람 있는 생을 살기 위해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는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 선택하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 타인으로부터 타 직업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거기에 의존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된다. 우리는 우리가 세운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로 하는 지

식과 자원과 열정을 갖기 위해 인간과 사회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한 접근방법을 영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권력이라는 개념으로 모색하는 것이 보다 핵심적인 방법이 될것이라는 가정하에 간호사의 전문 권력을 논하고자 한다.

2. 간호사의 전문권력

1) 권력이란 무엇인가?

사전을 찾아보면 권력이란 폭력에 대하여 일정한 구성원에 의하여 공인되고 있는 힘, 또는 사회력의 한 형태로서 인간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가치를 부여하거나 박탈하는 것을 무기로 하여 인간의 행동양식을 지배하는 힘이라고 한다(신용철, 신기철, 1980). 이러한 사전적 정의가 의미하는 권력이란 말하자면 사회적 관계에서 파악될 수 있는 개념이며 인간사이에 일어나는 영향력관계라고 할 수 있다. 권력이란 다른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인 것이다(Gibson, 1979).

권력은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불가피한 측면이며 따라서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현상이다. 권력이란 말은 지금까지 남용되어 온갖으로 나쁜 이미지가 붙어 있지만 권력 그 자체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며 인간세계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사실이며 진실일 뿐이다.

권력은 다양한 의미의 힘인 것이다. 생명체는 생존하기 위해 힘이 있어야 한다. 인간이 갖고 있는 힘을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생체에너지에 의한 물리적인 힘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사회학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권력이 되는 셈이다. 사람은 생명을 유지하고 자신의 자아를 실현하며 자신이 뜻하는 보람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 힘을 갖고 있어야 한다. 원시 시대에는 사냥과 채집으로 연명하였으므로 물리적인 힘이 중요했을 것이다. 그러나 현대를 사는 우리는 직업을 통해 의식주를 해결해야 하고 자아를 실현해야 하는 상황에서 권력의

영향을 극심하게 받는다고 할 수 있다. 미래학자인 토플러(Toeffler, 1990)는 심지어 '사람은 권력의 산물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힘은 그 힘이 나타내는 가치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힘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를 매혹시킨다'고 한다(이승우, 1990).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는 인간은 권력을 추구하며 심지어 자신의 권력에 매혹당하는 나르시즘과 타인의 권력에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패시비즘(passivism)에 휩쓸리는 존재라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닐까? 사람은 권력이라는 나무그늘에 안주하여 살고 있는, 그러한 예측상태를 좋아하는 존재일지 모른다.

그렇다면 한번 끊어진 권력의 관계를 깨트린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다. 권력을 가진자나 그 권력에 예속된자 모두 그 상태를 원하는데 어떻게 그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가?

2) 간호사의 전문권력

간호상황에서 권력의 개념은 간호사들이 갖는 직업적 권력, 다시 말해 전문권력(professional power)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간호사는 간호의 복포를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얻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즉 간호사의 권력이 클수록 간호의 목표를 쉽게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간호사의 전문권력이란 무엇인가? 간호사의 전문권력(professional power)은 전문적 권력(expert power)과는 다르다. 간호사의 전문권력이란 간호사가 사회에서 직업인으로서 살아가며 행사할 수 있는 전체적인 영향력으로서의 권력을 의미한다.

그러면 간호사는 어느 정도의 전문권력을 갖고 있는가? 하트(Hart, 1990)는 의료전문직의 권력은 현대산업사회에서 치료행위(정치적인 의미에 있어서)가 안전하게, 그리고 독점적으로 행사될 때 성공적으로 보장된다고 했다. 또한 그는 이러한 권력은 국가에 의해서 부여되고 배타적인 직업상의 권리로서 독립적인 임상적 자율성을 갖는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 간호사들은 임상에서 과연 얼마나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는가?

간호사들이 직업인으로서 일할 때 일차적으로 그 업무수행의 근거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교과서인가? 아니면 그 기관의 업무지침서인가? 아니다. 그것은 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다. 의료법은 간호사들의 직업적 자율성과 특권을 보장하고 있는가? 의료법에 명시된 간호사의 임무를 보면 '간호사는 상병자 또는 임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건활동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 이와같은 간호사의 법적인 임무는 간호사의 직업적 자율성을 보장하는 데는 대단히 미흡한 것이다.

국어사전에 정의된 간호사의 정의는 이러한 의료법을 반영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간호사의 독립적인 기능보다 비독립적인 기능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간호사는 법적 자격을 가지고 의사의 진료보조 또는 상병자의 간호를 하는 사람'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 간호사의 직업적 자율성은 법에 의해서도 완전하게 보장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법에 명시된 권리도 보장되기 어렵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각 기관에서 지금은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근로기준법에 의한 복지와 대우를 하고 있는 곳이 많지만 과거 우리나라 병원 상황은 어떠 했는가? 많아야 1년에 1주일의 휴가, 결혼을 하게 되면 사직을 해야 하고 많아야 한달의 출산휴가밖에 인정되지 않던 관계가 근로기준법보다 더 강력하게 작용했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과거에 여성들은 일하고 싶어서 일한 것이 아니고 생활을 위해서 부득이 하게 일한 경우가 많았다. 말하자면 수입이 좋은 남편을 가진 여성들은 직업을 갖지 않는 것이 좋다는 사회적 인식이 있었고 그러한 사회적 인식은 아직도 남아있다고 본다. 따라서 간호사들은 졸업후 몇년간 사회적 경험을 쌓기 위해서 또는 경제적 여건 때문에 직업전선에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 간호사들 자신의 직업에 대한 포

부는 매우 약하며 직업적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간호직은 오랜 경험속에서 얻어지는 전문적인 고유한 기술의 개발과 축적이 어려운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학을 졸업하는 여성의 90%정도가 졸업과 동시에 가정으로 들어가며 고작 10%정도가 직업전선에 남는데 비해 간호교육을 받은 여성들은 반수 이상이 직업전선에 남아 있다 (김모임, 1989)고 하는 점을 생각하면 조금 위안이 되기도 하겠지만 다른 직종, 특히 우리와 경쟁을 해야 하는 다른 의료직종과 비교해 볼 때 너무나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에서 한치도 앞으로 나아간 것이 아닌, 오히려 후퇴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되는 것이다. 만일 간호사도 남자가 할 수 있다는 사회적 인식이 팽배해져 간호직을 원하는 남성들이 많아지면 여성들은 간호직에서도 밀려나게 되고 남성들에게 지배를 받는 상황이 오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남성들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은 곧 투철한 직업의식으로 연결되고 직업전선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전력투구할 수 밖에 없지 않은가?

우리나라 남성들의 대부분이 육아를 비롯한 가사를 분담하지 않는 상황에서 여성들이 직업전선에 살아 남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간호사들은 다행하게도 여성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들끼리 경쟁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인가? 남성들과 함께 일하는 다른 분야에서도 여성들은 남성들과 경쟁하지 않으며 여성들과 경쟁한다고 한다. 남성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사회에서 여성들은 직업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매우 열심히 일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남성들과 경쟁하기 보다는 그들에게 협조적이고 비위협적인 존재로 인식되어야 하는 것이다. 외국의 문헌을 보면 성공한 여성들은 남성을 동일시하고 자신을 성공 시켜준 남성과 기관에 대해서 충성을 하며 자신이 그 지위를 얻는데 지불한 노력과 비용에 대한 인식과 자신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 다른 여성들이 성공하도록

협력하지 않는다고 한다(Marriner, 1990). 우리나라 여성들의 경우도 그렇다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런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은 우리의 현실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모든 간호사들은 남성 본위의 조직사회에서 무력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어느틈에 우리 간호인들은 스스로 약자를 인정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남성 의사인 원장의 뜻에 따라 충성하고 비위를 맞추며 좋은 것이 좋다는 안이한 생각의 노예근성으로 일해온 것은 아닌지 반성해 보아야 한다. 이제 우리들은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여 일할 수 있는 직업적 자율성이 부여된다 해도 그 책임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력을 상실했는지도 모른다. 사람들은 권력의 그늘에 예속되고 싶어하는 속성이 있다고 한다(이승우, 1990). 우리는 시키는 대로 명령하는 대로 따라서 움직이는 데 익숙해진 나머지 예측과 피지배를 좋아하고 자율성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버렸는지 모른다. 물론 나를 포함한 간호사들의 정신적 상태가 이러한 상태가 아니기를 나는 희망한다.

앞에서도 이미 지적된 바와 같이 우리나라 간호사들중 학사출신의 간호사비율은 갈수록 감소되는 추세에 있었다. 다행히 작년과 올해 간호학과가 신설되어 그 비율이 약간 증가되기는 했으나 그 증가폭은 매우 미미하다.

현재 많은 수의 간호사들은 병원과 같은 조직에 고용되어 일하고 있다. 이와같은 조직상황에서 간호사들은 의사나 관리자들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야 한다. 또한 모든 서비스에 따라 수가가 지불되는 현 의료보험체계에서 간호사들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병실료나 간호관리료속에 포함되어 있어 직접적이고 가시적인 경제적 가치를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기관내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이 약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이와같이 직업적 자율성과 교육훈련의 기간, 전문기술과 직업에의 헌신과 직업관, 그리고 금전적 보수를 비롯한 여러가지 측면에서 고려해 볼 때 간호사들은 전문권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가?

2. 미래—우리는 어떻게 전문권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가?

앞에서 우리는 간호사들이 전문직중에 속하며 전문권력을 발휘하는 집단인가를 따져 보았다. 여러가지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간호협회에서는 다각도로 전략을 세워 풀어나가고 있다. 의료보험의 간호수가인정이라든가, 가정간호제도의 도입, 독학사와 방송통신대학을 통한 전문대출신 간호사들의 학위취득 문제 등이 그러한 활동이 된다. 이러한 해결방안이 전적으로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우리에게 걸어로 드러나는 형식적인 조건도 중요하겠지만 전문인으로서의 책임의식과 동기의 성숙, 또는 내실이 더욱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모든 노력이 사상누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1)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한다

권력은 권력의 이미지에서 나온다. 그 권력의 이미지가 권위라는 것이다(Benziger, 1984). 그러면 권위란 무엇인가? 사전에 찾아보면 권위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인적·지위 등이 그 기능의 우위성을 공認시키는 능력' 또는 '일정한 분야에서 사회적으로 일인자로 인정을 받고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신 또는 그런 大家'를 의미한다.

사회일반에 비쳐진 간호사의 이미지를 살펴보자. TV드라마나 영화, 소설과 문학작품등에 나타나고 있는 간호사의 이미지는 의사의 시중을 들고 있는 하수인 또는 기능인에 불과하다는 인상을 준다. 오랜 연륜을 쌓은 전문인으로서의 간호사들을 볼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러한 사회의 인식을 깨트리기 위해서 우리는 과감한 변신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간호사들이 착용하고 있는 복장이나 캡, 간호사들이 사용하는 물품과 기구들은 간호사들의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크게 영향을 준다고 본다(Nelson, 1989). 좋은 상품은 거기에 걸맞도

록 고급스럽게 포장해야만 사람들의 눈에 띈게 될 것이다. 요즘은 간호사들은 간호사 복장을 입었을 때 보다 사복을 입었을 때 더 아름답고 지적으로 보인다. 내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 것인지 모르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다. 지금은 패션의 시대라서 누구나 멋있는 옷을 입고 다닌다. 그런데 간호사들의 유니폼은 과거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간호사들은 누가 보아도 멋없는 유니폼을 입고 일한다. 그리고 때묻은 캡에다가 구두를 신고 보기에다 흉하고 더러운 기구(예를 들면 투약트레이)들을 들고 다니며 간호를 한다. 이러한 간호사의 이미지가 과연 전문가다운 이미지인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전통을 고수한다는 의미보다 직업적 위신과 편의면에서 과거 서양에서 하녀의 상징이기도 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도 요식업소를 비롯한 일반 서비스직에서 보편화되어 있는 캡의 착용이 과연 바람직한가도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복장과 캡 뿐만 아니라 간호사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은 다른 무수한 요인이 작용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의 이미지를 전문가답게 형성해서 보여주어야 할 책임이 우리 스스로에게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우리 스스로가 사회 대중에게 어떻게 비쳐질까를 생각하며 노력하는 자세, 그것이 간호사들의 이미지를 전문가답게 변화시켜 주고 전문권력을 발휘할 수 있게 만들어 줄 것이다.

2) 고유한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여 독점한다

프랑스의 철학자 미셸 푸코는 사회적 권력과 지식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고 말했다. 그에 의하면 권력은 주어진 사회안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전략적 상황을 나타내는 것이며 권력관계는 개인이 일상생활을 통해 사회적 계층을 유지하는 특정 목적을 갖는다고 한다. 또한 권력은 알려지고 수용된 것에 국한되며 따라서 지식은 권력관계에 의해 설정된 한계에 대한 반응으로 발전되고 때때로 그 한계에 대한 저항으로 발전되기도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권력은 생산적 요소이기도 하고 억압적

요소이기도 하다(Doering, 1992). 말하자면 권력은 지식을 창출하고 지식에 의해 권력이 창출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식은 권력에 의해 독점되고 권력은 지식에 의해 독점되어 그 순환적 관계가 지속될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직업과 학문이 분화되지 않았던 과거에는 간호는 의료와는 무관하게 시작되었고 발달되었다. 그러나 남성본위의 사회가 정착되고 직업이 분화 발전되면서 여성들이 전담하게 된 간호는 남성이 독점하게 된 의료의 권력에 의해 자율성을 잃게 되었으며 많은 영향과 간섭을 받아 왔다. 특히 중세기에는 수많은 수녀들이 간호사업에 헌신했고 교회법에 따라 이들은 남성인 신부들에게 순명했고 의사들에게도 마찬가지 상황이었다. 말하자면 간호사들은 여성이었기 때문에 남성본위의 사회에서 직업적 자율성을 상실하고 지식과 기술의 발전도 그 권력관계에 의해 통제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의료와 간호의 권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의료 지식은 간호지식의 개발을 직접 간접적으로 억압하여 왔던 것이다. 간호사들은 분석하고 이해하기 보다는 간호기술을 암기하고 훈련하는 기능인으로 교육되었고 순종을 미덕으로 가르쳐 왔다. 물론 순종이 전적으로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비판이 없이 순종하는 것은 창의성을 해치게 되고 고유한 간호의 지식체를 개발하는데 저해요인이 되기 때문에 경계되어야 할 덕목이다.

토플러(Toffler)지식은 물리력과 활와 함께 권력의 3요소이다(Toffler, 1991). 그는 지금 세계적으로 권력의 본질이 변화되는 권력이동(powershift)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하고 권력의 질적 측면에서 고품질 권력(high quality power)은 지식의 적용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고품질 권력은 단순히 영향력을 미치는 데 그치지 않으며 자기 뜻을 관철시켜 다른 일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도록 만드는 능력과 목표달성을 위해 최소한의 권력수단을 사용한다. 지식을 사용하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의 행동계획을 좋아하

도록 만들 수 있다. 그것은 심지어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계획을 자기가 만들었다고 믿게 할 수도 있다. 지식을 사용하면 벌을 줄 수도 있고 보상해 주고 설득하고 심지어 변형시킬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곤란한 상황을 우회함으로써 애당초 물리력이나 부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 지식은 또한 물리력과 부를 증식시키는 데도 도움을 준다. 전문권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고품질의 권력은 지식인 것이다.

간호사들은 기존의 지식을 활용해서 고유한 지식을 개발하고 독점해야 한다. 모든 새로운 지식은 기존의 지식을 근거로 해서 개발된다. 또한 간호는 인간에 대한 모든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다. 간호사들은 끊임없이 지식을 습득하고 간호적 측면에서 인간을 이해하는 고유한 지식체의 개발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지식체의 개발은 새로운 철학적 배경에 의해서 가능하다. 지금까지 간호의 직업적 자율성을 억압해 온 의료와의 권력관계를 지지해 온 논리실증주의에 의한 기계론적 사고와 경험분석적 방법을 대신할 새로운 철학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Doering, 1992). 이러한 이유 뿐만 아니라 간호 현상 자체가 인간의 삶과 경험, 가치와 의미의 문제를 떠나서는 이해될 수 없는데 실증주의 철학에 의한 기계론적 관점은 이러한 측면의 이해에 한계를 갖고 있다고 비판되고 있다. 따라서 해석학적이거나 현상학, 그리고 민속학이나 사회비관이론, 그리고 신과학주의로 대변되는 새로운 철학적 사상과 동양철학과 한국철학의 탐색이 이미 시작되어 있다고 본다. 따라서 최근의 간호연구는 양적인 연구방법보다 질적연구방법이 더 많이 시도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경향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끊임없이 분석과 비판을 거쳐 이론으로 축적되어 나가야 할 것이며 신속하고 쉽게 임상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정보망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3) 자기표현기술을 습득한다

자기 표현기술은 타인에게 영향력, 다시말해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다. 따라서 자기표현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 방면의 책을 읽고 훈련을 해야 할 것이다. 자기표현이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이 없이 자기 자신과 자신의 권리를 내세우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자기표현은 단순히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고 타인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 의미에서 자기표현은 나는 누구이며 어떻게 살고 무엇을 하고 무엇을 원하는가에 관해 타인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이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능력인 것이다. 따라서 자기표현기술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 원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며 적극적으로 자신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다.

자기표현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은 타인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꾀하지 않으며 타인에 의해 자신의 일이 결정되도록 허락하지도 않는다. 자기표현기술은 권력발휘의 중요한 수단인 것이다.

4) 간호를 받는 개인과 간호사를 고용하는 조직, 그리고 사회에 구체적으로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들면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이 전문가로서 자신의 권력을 지지하려고 할 때 병원 당국과 행정가가 이해하고 가치있다고 인정하는 전문분야를 선택해야 한다. 많은 전문가들은 그들 자신에 대한 소중한 대우에 대해 불평하며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다. «그가 가지고 있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은 행정가가 볼 때 조직에 크게 중요하지 않은지도 모른다. 병원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과 우선순위는 무엇이며 내가 구체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알아내어 실천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기여는 사회에 대한 기여와 일치되는

방향이어야 함은 두말할 것도 없다.

5) 간호와 관련된 정책형성과 의사결정에 참여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간호사업과 교육, 연구, 전반적인 간호사들의 복지에 영향을 주는 정책형성과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 거의 여성이 전담하는 직업으로서 취약한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 우리는 집단파업이라는 사태까지 몰고 간 사례가 있었고 따라서 대한간호협회는 압력단체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지만 아직도 우리는 무력하다는 느낌을 갖고 있는 간호사들이 많다. 현재 간호정우회라는 것이 있어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체제를 갖추려 준비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건정책형성이나 의사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나 로비방법에 대해 연구하고 실행할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을 하는 단체가 되었으면 한다. 예를 들면 누가 보건정책형성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가? 그와 가장 가까운 사람은 누구인가? 등을 알아내고 우리에게 유리한 정책이 형성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각 전문직종에서 자신들의 이익만을 우선시하고 대중의 이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사례가 많은데 이러한 경향은 윤리성을 도외시 하는 행동으로서 전문직업이 경계해야 할 행동이다.

3. 결 론

우리 간호사들이 뜻한 바를 실현하고 보람을 느끼며 일하고 간호를 통해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이바지 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전문권력을 갖기 위해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는가에 관한 생각을 피력해 보았다. 권력이란 권력이 나타내는 가치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권력이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를 매혹시키는 것이며 또한 인간이 권력의 산물이라는 관점이 전적으로 옳다면 우리는 권력에 대한 이해없이 나와 너, 사회를 이해할 수 없다. 이러한 권력에

대한 우리의 논의는 현대의 권력은 지식에서 비롯되며 지식은 권력을 지지하는 쪽으로 독점되고 개발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되었고 구체적인 권력의 신장방법은 무수히 많겠으나 핵심적인 전략은 고유한 간호의 지식을 개발하는 것이 시급함을 우리는 다시 인식하게 되었다. 새로운 간호지식체의 개발을 위해 지금까지 의학의 기초가 되어 왔던 철학적 방법론 대신에 새로운 철학적 방법론이 필요함을 우리들은 실감하고 있다.

고품질의 권력이라고 간주되는 지식은 가속도로 증가되고 있다. 수많은 지식 중에서 우리는 어떤 지식을 골라 섭취할 것인가? 오늘날 15세 가량된 소년소녀가 알고 있는 지식량은 고대의 현자를 능가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무엇인가 본질과 근본을 파악한다는, 이를테면 사물이나 인간생존의 본질과 근본을 규명한다는 점에서 본다면 어떨까?

물론 모든 지식은 우리의 생존에 필요하고 실생활에 도움을 준다. 허지만 그러한 단편적인 지식이 참된 생활의 지혜가 될 수 있는가? 생존의 본질과 근본에 눈뜨지 않는 지식만이 구해진다고 할 때 도대체 인간의 생존이 그를 인도하는 빛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무엇 무엇에 대한 지식만이 추구되고 생존이 그 본질에 있어서 암흑 가운데 그냥 팽개쳐져 있어도 괜찮은 것일까?(김기곤, 1985). 이러한 생존의 본질과 근본에 대한 각성없이 우리는 스스로 살려는 의지를 갖고 살아가는 주체적이고 의미있는 삶을 살 수 없다. 나는 나의 주인이 될 수 없고 타인의 정신과 의지에 이끌려 살아가는 허수아비가 되고 이러한 개인이 모여 사는 사회는 갈수록 폐쇄해지게 될 것이다. 사물과 인간생존의 본질과 근본을 규명하기 위해 사색하는 것을 철학적 방법이라고 한다면 간호의 전문권력도 이러한 철학적 배경에 그 뿌리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간호에 대한 동기와 열정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간호의 의미를 찾아야 하며 간호서비스의 우수성을 유지하기 위해 간호지식과 기술과 관련된 윤리 철학적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 무엇 보다도 인간존재의 변화와 인간에 대한 영향력은 인간본질에 접근해야 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간호사들은 인간생존의 본질과 근본에 관한 지식이 필요하며 다른 어떤 직업인 보다도 사색적이고 철학적이여야 한다는 것이다. ▣

참 고 문 헌

김기곤(1985), 철학의 기초, 박영사.
김모임(1987), 여성의 직업적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 신재 석좌 운영위원회 위임, 간호전문직 : 발전과 전망, 대한간호협회, pp. 381-386.
니키 하트 지음, 문창진, 엄영진 옮김(1991), 보건과 의료의 사회학, 열음사.
신기철, 신용철(1980), 새 우리말 큰사전, 삼성출판사.
이광자 외 6인(1991), 한국간호교육의 시대적 변

천에 따른 현황과 문제점, 대한간호, 제30권, 제5호, p. 96.
이송우(1990), 가시나무그늘, 문예중앙, 9, 중앙일보사.
토플러(Toffler) 지음, 이규행 監譯(1992), 권력이 등, 한국경제신문사.
Benzieger, Katherine(1984), The Powerful Woman, Stone, Sandra, et al.(ed), Management for Nurses, Mosby Co. pp. 15-20.
Doering, Lynn(1992), Power and Knowledge in Nursing, ANS, vol. 14, no. 4, pp. 24-33.
Larson, Jeniece(1984), Nurse Power for the 1980s, Stone, Sandra et al.(ed), Management for Nurses, Mosby Co., pp. 9-14.
Nelson, Audrey(1989), Analysis of Power in Nursing Administration, Dimensions of Nursing Administration, Henry, Beverly et al.(ed), Blackwell Scientific Publications, pp. 205-211.